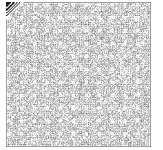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49호 2021년 7월 18일(나해)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출판]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54(53),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
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
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 예레 23,1-6

화답송 | 시편 23(22),1-3ㄱ,3ㄴ-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
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
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
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
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에페 2,13-18

복음환호송 |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
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마르 6,30-34

영성체송 |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
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승현 베드로 신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농민과 함께 꿈꾸는 생명 공동체 세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제자들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휴식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외딴곳에서 제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려고 하시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이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이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농민 주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개방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하여 1994년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1996년부터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민 주일은 농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위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식탁과 마주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식탁은 예수님의 식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주셨으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도록 성찬의 식탁, 성체 성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농민을 만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식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걷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특

별히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의 식탁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징후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덮친 최장 기록의 장마가 농업에 미친 영향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은 물론, 식탁을 준비하면서 몸소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식탁을 준비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여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사법인 “생명 농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생명 농업은 공동의 집인 지구와 인간, 모든 피조물 형제들을 위한 농사 방법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도 생명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농민 주일 하루만 농민들을 기억해서는 부족합니다. 매일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그 식탁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것처럼, 우리도 식탁에서 농민의 마음과 정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농민 주일이 꿈꾸는 “생명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목시아,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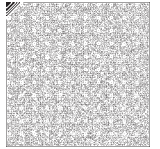
“너희는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고된 순례를 마치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기대어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맡기고 있는 저 순례자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쉴 곳은 주님 품입니다.



이윤순 젤마나 | 가톨릭사진가회



류지현 안나
아나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한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

짧지 않은 세월동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해 오다 보니 맡았던 책무에 관련됐던 분들마다 아나운서, 기자, 특파원, 대변인, 자문위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대표 등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부르곤 합니다. 여러 호칭이 더해가도 늘 떠나지 않는 꼬리표는 첫발을 내디딘 'SBS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역사의 산증인과도 같은 선배들과 모이는 아나운서 클럽에 가면 '한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다.'란 말을 신조와도 같이 지켜가시는 원로 선배님들의 정신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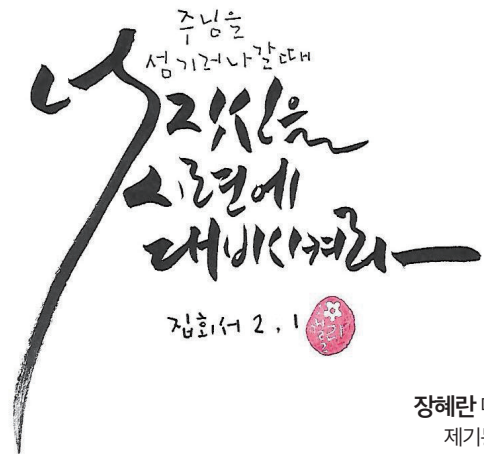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올 때마다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이며 기꺼이 임해왔지만, 어떤 일을 하든 늘 천직으로 생각해 온 아나운서의 뿌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마치 행복하게 고향으로 찾아가는 귀성길이나 집에 돌아와 편안한 일상복을 갈아입듯 말이죠.

우리 신자들도 세례와 함께 '한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마음에 갈등과 의혹이 찾아와서 냉담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며 공동체 생활 가운데 실망을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혹은 가톨릭 신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때론 신앙인의 삶이 너무 익숙한 일상이 되어 주일 미사나 기도 등에 무심하게 타성에 빠지게 되더라도 결국 '한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처음 같은 설렘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 심어진 이 뿌리를 생각하면 신앙의 여정 속에 가끔은 멈칫하고 돌아가거나 길을 잃고 방황하며 휴지기에 머물게 되더라도, 결국 다

시 익숙한 일상복을 입듯 '영원한 신자'라는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 내가 멀리 있는 듯 느끼거나 가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거나 우리 마음에는 이미 깊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다고 생각하니, '한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라는 믿음이 늘 든든히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지키게 하는 주춧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9~11절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들려온 음성처럼, 하느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그 순간 각자가 이미 어떤 부르심, 소명을 부여받았을 것 같습니다. 선종하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의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의 의무를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마태오 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 '영원한 신자'의 꼬리표에 행복하게 머물게 합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장혜란 마르타
제기동성당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판공성사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교회법은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만 있는 말인 판공성사라는 이름 하에서는 아니지만, 주기적인 고해성사는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받고 있지요. 교회법이 정하고 있는 빈도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는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989조)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한국 교회에서는 1년에 두 번으로 정하여 이 규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활 판공, 성탄 판공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사순과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를 받고, 미리 받았던 성사표를 제출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실천은 조선 시대에 이제 막 시작했던 한국 천주교회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시작된 전통입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개항기 시절, 한국 교회는 처음으로 교무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 교회는 추수를 끝낸 직후, 대림 시기 즈음 교무금을 받으며 신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 1회 받던 고해성사가 부활과 성탄 전, 연 2회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성사표 발부도 함께 시작하여 효율적으로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CBCK 발행, 한국 천주교회 총람 517쪽 참조). 지금은 3년에 걸쳐 한 번도 판공성사를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해당 신자를 쉬는 교우로 분류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판공성사를 대하는 시선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2014년에 주교회의는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성사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판공성사를 볼 필요가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검사만으로 자동차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안전을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이니까요. 자주 카센터나 정비소에 들러 점검을 받는 자동차가 안전한 것처럼,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더 빈번하게 고해성사를 하고 영적인 안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교황 무류성 교리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교황님이라고 항상 오류가 없을 수 있죠?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삽니다. 남성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 때도 있지만, 남편으로 살 때도 있고, 누군가의 직장 상사는 물론, 친근한 친구의 역할을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과 말은 전부 다르기 마련입니다. 교황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어느 사람에게 친근하게 말을 붙이실 수도 있죠. 교황 무류성이란, 교황님께서 어떤 역할로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류성 교리는 교황님께서 교황좌에서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적인 조건을 맞춰 진리를 선포할 때에만 적용이 되며, 내용상으로도 신앙이나 도덕과 관련된 가르침에 국한됩니다. 지금껏 교황님께서 교황 무류성을 발동하여 말씀하신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습니다. 이렇듯, 교황 무류성 교리는 교황님 개인이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교황님께서 가르치는 권한, 즉 교도권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행사할 때, 그 가르침에 오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열정의 사제 최양업 토마스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이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회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수난)>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영화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패션(passion)은 일반명사로 ‘열정, 감정’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담으로 한 말일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열정’이라고 하면 매우 일시적이고 강렬하며 폭발적인 감정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이 들기에, 어떤 일의 가장 절정을 가리킬 때나 ‘열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한 모범생에게는 왠지 이 ‘열정’이라는 말이 잘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유학을 하던 신학생 시절부터 모든 스승으로부터 뛰어난 재능, 올바른 판단력, 규칙적인 생활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제품을 받고 선종하는 날까지 함께 있던 선교사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현지인 사제 최 토마스 신부는 굳건한 신심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의, 그리고 대단히 값진 그의 훌륭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베르뇌 주교의 평가) 1849년 4월 15일 사제품을 받은 최양업 신부님은 만주 지역에서 7개월간 교리 교육, 강론, 병자 방문, 고해성사 등 성무 활동에 성실히 임하며 새사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다블뤼 신부의 중부성사(병자성사)로 시작하여 6개월을 강행군하며 3,815명의 교우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초

행길인 데다가 박해 시기의 산골 교우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신부의 초인적인 힘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다음 해에는 무려 127개 교우촌을 찾아가 5,936명을 만납니다. 그의 열정적인 성무 활동을 편지에서 찾아봅시다. “한 공소에 고해자가 40~50명이 있어도 그들 모두에게 하루 안에 고해성사를 집전해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고해자가 2명이나 3명밖에 없는 공소에서라도 다음 날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배령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묵어야 합니다.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 모르게 교우촌에 도착하여야 하고, 공소 순방이 끝나면 한 밤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1851년 10월 15일 서한)

최양업 신부님의 사목 방문은 보통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지속됐으며, 여름에 쉬는 시간에도 신부님은 천주교 서적의 한글 번역과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여 다블뤼 주교님께 전해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조선인 신학생들을 선발하여 스승들에게 보내며 ‘회개와 겸손을 가르쳐주십사’ 하고 부탁했습니다. 가장 절친한 패룡 신부님은 최양업 신부님의 선종 이유를 ‘과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좀 더 성사를 주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겨우 3~4일 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한 최양업 신부님을 “패션 오브 토마스”, 곧 “토마스 신부의 열정”이라 번역하고 싶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교구 참사회 심의를 거친, '2020년도 서울대교구 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구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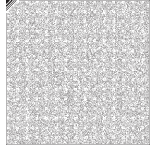
재 무 상 태 표

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 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2,273,870,294	42,559,375,885
현 금 과 예 금	61,810,277,604	41,864,686,017
유 가 증 권	7,536,620	7,536,620
단 기 대 여 금	30,000,000	189,608,000
미 수 금	0	1,302,200
가 지 급 금	348,698,800	298,912,108
선 급 법 인 세	77,357,270	197,330,940
Ⅱ. 비 유 동 자 산	719,343,723,021	709,945,993,269
1) 투 자 자 산	5,618,830,060	6,252,508,020
장 기 대 여 금	3,713,000,000	4,346,677,960
보 증 금	1,760,747,600	1,760,747,600
전신전화가입권	138,066,460	138,066,460
기 타 자 산	0	0
퇴 직 전 환 금	7,016,000	7,016,000
2) 유 형 자 산	713,724,892,961	703,693,485,249
토 지(주)	481,979,268,691	476,578,014,813
건 물(주)	225,611,841,243	225,184,130,809
구 축 물	0	0
기 계 장 치	0	0
차 량 운 반 구	331,983,330	283,703,330
비 품	1,363,851,597	1,245,703,297
성 물	435,433,000	401,933,000
건설 중인 자산	4,002,515,100	0
자 산 총 계	781,617,593,315	752,505,369,154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7,090,330,499	7,297,061,968
단 기 차 입 금	15,000,000,000	5,000,000,000
예 수 금	1,036,154,272	937,989,272
예 수 보 증 금	606,000,000	916,000,000
가 수 금	448,176,227	443,072,696
Ⅱ. 비 유 동 부 채	4,557,497,765	4,621,738,075
장 기 차 입 금	600,000,000	1,025,071,680
퇴직급여충당부채	3,957,497,765	3,596,666,395
부 채 총 계	21,647,828,264	11,918,800,043
순 자 산		
Ⅰ. 기 본 순 자 산	248,900,897,490	248,900,897,490
Ⅱ. 적 립 금	40,602,990,148	40,602,990,148
Ⅲ. 잉 여 금	470,465,877,413	451,082,681,473
순 자 산 총 계	759,969,765,051	740,586,569,111
부 채 와 순자산 총계	781,617,593,315	752,505,369,154

운 영 성 과 표



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I. 일 반 수 입		95,654,909,217		83,364,162,284
봉 헌 금	38,759,076,819		50,793,663,859	
후 원 금	5,369,600,000		5,171,550,000	
목 적 헌 금	6,964,467,866		10,176,363,288	
기 부 금	24,386,494,714		5,184,798,562	
부속 기관 수입	15,171,106,143		5,940,454,082	
기 타 수 입	5,004,163,576		6,097,332,493	
II. 특 별 수 입		663,683,311		2,551,998,866
보 조 금 수 입	663,683,311		2,551,998,866	
III. 선교사업운영비		59,231,912,926		88,761,704,590
선 교 비	28,344,233,481		35,356,907,414	
성 무 활 동 비	11,870,646,895		11,400,807,654	
교 육 비	1,228,758,690		1,142,980,281	
사 제 양 성 비	1,197,602,000		1,293,840,000	
자 선 찬 조 비	16,192,203,492		39,170,460,586	
행 사 비	398,468,368		396,708,655	
IV. 일 반 운 영 비		17,763,483,662		17,890,078,276
인 건 비	8,665,874,503		8,207,067,795	
여 비 교 통 비	31,805,376		32,633,687	
회 의 비	6,386,210		8,391,700	
운 영 비	2,580,735,020		2,625,428,506	
세 금 과 공 과	3,747,915,307		4,261,884,912	
복 리 후 생 비	1,731,380,605		1,876,894,670	
조경및기타시설비	737,344,126		565,178,996	
기 타	262,042,515		312,598,010	
V. 당기운영이익	19,323,195,940		△20,735,621,716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생태적 회개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유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21세기 들어 자주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병은 인류가 자연 생태계를 과도하게 침범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반성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통 백신 접종과 일상으로의 복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지친 까닭에, 고통과 불안을 겪으면서 정작 깨우쳐야 할 중요한 교훈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막연하게 느껴오던 기후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0여 일에 이르는 긴 장마를 비롯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발생했던 이상 기후 현상이 한 해에 모두 일어났습니다. 기후 변화를 지켜보던 단계에서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함을 온몸으로 겪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과 환경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절박한 위기감을 가리고, 개발과 이익에 대한 탐욕을 곳곳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 양식과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반성과 변화, 생태적 회개가 없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화된 관행 농업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인류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연 친화적일 것 같은 농업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축산업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력을 높이려고 살포하는 화학 비료는 제조와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가격 경쟁을 위하여 끊임 없이 진행되는 규모화와 기계화 과정에서 전통적 농업 생산 기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토종 종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화된 농업 생산물은 화석 연료를 태워 가며 전 세계로 이동됩니다. 대기업과 거대한 유통 자본이 농산물 생산과 식량 소비의 전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농민이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서로 협동하던 농촌 공동체가 기업 자본에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이 피해를 겪고, 지구 곳곳 가난한 나라의 농업 체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

다. 산업화된 관행 농업은 기후 위기의 주범이 되었고, 농민은 가난해지고, 농촌은 인구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업과 생태 공동체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해 가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며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자연의 순환 원리를 존중하는 생명 농업을 실천하여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종자를 보존하여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식량 주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농민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일에 전념하여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의 구성원으로 농촌 공동체를 이루고 지켜 가야 합니다. 농업이 제자리를 찾고 농민 스스로 기쁘게 일하며 농촌의 삶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안정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동참하고자 주교회의의 2020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특별 사목 교서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생태 교육이 시작되는 가정 공동체에서 일어난 변화가 사회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정에서부터 식생활 습관을 새롭게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공동체에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생태적 회개와 실천을 활성화하도록 촉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은 거래와 사업이 아닌 운동과 실천입니다.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생각하며 생산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삶을 배려하며 소비하여, 떨어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유기 순환적 자연 질서를 회복하여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고, 자연 생태계와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운동이면서,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며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교회의 사목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와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명 공동체 운동에 한국 천주교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베스

오늘(7월 18일)은 ‘농민 주일’입니다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도록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4년 7월 25일 김병호 베네딕토 신부(64세)
- 2009년 7월 20일 최석우 안드레아 몬시뇰(87세)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 ①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②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문의: 02)774-3488).

세상에 주님께 감사하다

-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 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정리

용문청소년수련장 가족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미사 및 프로그램 진행, 수영장 사용가능 / 문의: 031)774-6422
 때: 7월27일~8월29일(2박3일 / 총 7차수)
 접수: 용문청소년수련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마감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용문청소년 수련장 홈페이지(www.yongmooncamp.or.kr) 참조

2022년 명동대성당 혼인예약 안내

1) 추첨 일시 및 장소: 8월27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2) 혼인 가능장소, 요일 및 시간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집전: 양용석 신부(페루 선교)
 때, 곳: 8월5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 20세 이상, 가톨릭 신자(단,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 대상이 따로 제시될 수 있음)
 때: 7월~12월 /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온라인 화상 수업의 출결 확인을 위해 카메라 설치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사용 필수)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or.kr)

제130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 신청인원: 50명
 때: 9월6일~11월1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신청): 02)727-2431, 02)773-1050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 참조

가톨릭 사회교리 개론	박동호 신부	인간 노동	김시몬 신부
사회교리의 역사적 발전	정수용 신부	경제 생활	김승연 신부
사회교리 교황 담화문	박동호 신부	환경 · 생태계	백종연 신부
인간과 인권	김영 교수	정치 · 국제공동체	하성용 신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김이선 개인전: 1전시실
 신미선 개인전: 2전시실
 주동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7월21일(수)~26일(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7차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7월2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산 본당, 원산 본당 / 매주 봉헌되는 이 미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유튜브: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장사광 베드로’
 때: 매달 셋째주(화) 7월20일 오전 11시(165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참석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당일 선착순 마감)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직원모집

우리농본부(명동) 총무회계 직원 모집

회계관리(회계프로그램 운영), 후원회원, 총무 관리 직원 모집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7월26일(월)까지 이메일(woorinong@catholic.or.kr) 접수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